

2~3년내 '5세대 스포티지' 나온다

4세대(1993→2004→2010→2015년) 출시 이후 신차 타이밍 기아차 미래전략...6년간 29조 투자 2025년 영업이익률 6% 달성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의 5세대 모델이 2~3년내 선보일 전망이다. 기아차 미래전략에 따라 스포티지-쏘렌토 신차를 출시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판매 비중을 현재 50%에서 2022년 60%까지 확대키로 하면서다.

기아자동차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박한우 사장 주재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CEO 인베스터데이'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기아차는 앞으로 6년간 29조원을 투자해 2025년 영업이익률 6%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처음 공개했다.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해 점유율을 6.6%로 높이고, 모빌리티 솔루션에서도 경쟁력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양대 미래 사업인 '전기차'와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아차 중장기 미래전략 '플랜(Plan) S'의 핵심이다.

기아차는 내년엔 첫 전기차 전용 모델을 내놓고 2025년엔 전 차급에 걸쳐서 전기차 11종을 갖추고, 친환경차 판매 비중 25%를 달성한다. 2026년에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50만대를 포함해 친환경차 100만대를 판매한다.

전기차 전용 모델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고, 승용과 SUV의 경계를 허무는 크로스오버 디자인, 미래지향적 사용자 경험,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 20분 이내 초고속 충전 등의 성능을 갖춘다.

전기차 판매와 관련해서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구독 모델,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렌탈·리스, 중고 배터리 사업 등도 검토 중이다.

모빌리티 사업은 해외 대도시에서 지역 사업자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소, 차량 정비 센터,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모빌리티 허브(Hub)'를 구축한다. 모빌리티 허브는 환경 규제로 도시 진입이 불가한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가 환승하는 거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로보택시, 수요응답형 로보셔플 등도 운영한다.

기아차는 쏘울EV·니로EV 등 기존 차량에 별도 트림을 운영하는 과도기를 거쳐, 차량 공유 서비스 전용차, 저상 물류차, 신선식품 배송차 등 맞춤형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개발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하면 초소형 무인 배송차, 로보택시 등 통합 모듈 방식의 '스케이프보드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PBV

로 사업을 확대한다.

기아차는 내연기관 사업 수익성을 개선해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영업이익률을 지난해 3.4%(3분기까지), 2022년 5%에서 2025년 6%로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2~3년내 스포티지-쏘렌토 등 볼륨 SUV 중심으로 신차 출시를 이어가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는 신차 출시 타이밍도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1993년 첫 선을 보였던 스포티지는 2004년 생산지를 광주공장으로 옮겨 2세대를 출시했고, 이후 6만만인 2010년 3세대 스포티지R을 내놨다. 또 5년이 지난 2015년 4세대 'The SUV 스포티지'로 탈바꿈한 뒤 2018년과 2019년 2차례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였다.

신차 출시가 5~6년 주기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2~3년내 '5세대 스포티지'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38.88 (+9.62)	▼ 금리(국고채 3년) 1.39 (-0.03)
▼ 코스닥 678.71 (-0.51)	▲ 환율(USD) 1156.10 (+0.10)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2선으로 물러나

전문경영인체제 변화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김상열(사진) 호반건설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사내이사직은 유지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전날 오후 전자공시를 통해 김회장과 박철희 사장은 지난해 12월9일로 호반건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대신 최승남 호반그룹 총괄부회장이 새로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송종민 대표이사와 함께 기존 3인 공동경영체제였던 호반건설은 이번 인사로 최승남·송종민 2인 공동경영체제로 변경됐다.

이번 인사는 상장에 대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호반건설



측은 설명했다. 김회장은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이번 인사는 상장에 대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계열사별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호반건설 측은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오는 6월 기업상장(IPO)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너 경영이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인·수·합병(M&A) 전문가인 최 대표를 그룹 전면에 내세운 것도 외형 성장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호반그룹은 이날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은 전준규 상임고문이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분양경기 '75'...20P 폭 청약시스템 이관 등 환경 변화

새해 첫달 광주지역 분양경기지수가 폭 떨어졌다.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등 분양환경이 변화하면서 분양사업자의 심리 지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택연구원)이 발표한 광주지역 분양경기지수(HSSI) 전망치는 78.6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10.9포인트 하락했다.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분양사업경기가 '긍정적'임을 그 반대이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해 기준선 100을 넘었던 서울의 전망치가 이달 23.2포인트 하락하면서 78.9를 기록해 분양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 부정적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

광주는 75.0으로 전월대비 2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지수다. 전남지역 1월 전망치도 73.9로 전월(80)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광주를 비롯한 지방 광역시 전망치가 크게 하락한 것은 전월 전망치가 크게 상승했던 기저효과와 사업환경 변화, 분양비수기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광주 분양 실적은 100.0으로 전월대비 5.3포인트 상승세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이달 광주·전라권 예상분양률은 77.1로 ▲서울(90.0) ▲인천·경기권(84.7)에 이어 7개 권역 중 세번째를 기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시 1금고를 유치한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14일 목포시청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시중은행 아성 무너뜨린 광주은행...목포시청지점 개점

내일 광산구청지점도 문열어

광주은행 처음으로 59년 만에 목포시 1금고에 선정된 광주은행이 14일 목포시청지점 문을 열었다.

광주은행은 이날 청사 1층에서 목포시청지점 개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개점식에는 송중욱 행장과 김종식 목포시장, 김희환 목포시의회 의장,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목포시 1금고를 유치한 광주은행은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약 2188억원을 운영한다. 1금고 변경은 지난 1961년 이래 59년 만이다.

광주은행은 그동안 목포해상케이블카 신설 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총 5124억원 상당 자금을 대출했다.

목포시청지점 개점으로 광주은행의 영업점 수는 144개가 됐다. 또 16일 광산구

청지점을 개점하는 등 지자체 1금고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시 동·서·북·광산구 등 5개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신설할 예정이다.

송중욱 은행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살림을 맡겨주시는 목포시와 지역민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원활한 금고운영과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SK텔레콤, 광주시청 광장에 ICT체험관

다음달 9일까지 운영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본부장 김현국)는 새해를 맞아 광주시청 스퀘어 광장 옆에 '5GX 이글루 ICT체험관'을 마련, 다음달 9일까지 운영한다.

ICT체험관은 지름 10m(약 24평)의 반원형 투명 이글루이며,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VR·AR 체험을 통해 5G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체험관에는 가상현실(AR) 체험장비 '오픈러스 고(Go)', 증강현실(VR) 체험장비 '매지릭프(Magic Leap)', 인공지능(AI) 장비 등이 설치돼 있다. 아이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체험관은 스퀘어광장 개장 기간과 동일하게 오는 2월9일까지 운영된다. 오는 17일까지는 찾아가는 A/S버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객에게는 무선 충전패드 등 다양한 사은품도 제공한다.

권상년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 매니저는 "SKT 5GX ICT체험관을 통해 많은 청소년과 고객이 5G서비스로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과 세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 부스트파크 상무지구는 다양한 5GX 제휴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T·멤버십 제휴할인처 외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상무지구 내 다양한 업체와 로컬 제휴 할인을 제공하고



광주시청 스퀘어광장 옆 '5GX 이글루 ICT체험관'을 찾는 시민들이 다양한 VR·AR 체험을 즐기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상무지구 부스트파크 공식 인스타그램(<http://bit.ly/2U5nvJS>)이나 모바일 T World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참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